

2025

인간의 기원 여름학교

8월 11일 (월) ~
8월 13일 (수)

KAIST(대전본원) 메타융합관(W13) 1층 컨퍼런스룸

등록비 일반 100,000원 / 학생 50,000원

문의처 hareum84@kaist.ac.kr



온라인등록 신청

8월 11일 월요일

10:00 - 10:30	여름학교 등록 및 개회사	
10:30 - 12:00	신경계의 기원 : 단세포 생물은 어떻게 인간이 되었나	이대환 성균관대 생명과학과
12:00 - 13:30	점심	
13:30 - 15:00	의식의 기원 : 뇌-신체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바라본 의식의 기원에 관한 이론들	박형동 KAIST 뇌인지과학과
15:00 - 16:30	노화의 기원 : 진화가 설계한 생존 프로그램	양재현 KAIST 뇌인지과학과
16:30 - 18:00	분업의 기원 : 사회심리학의 관점에서	차영재 시카고대 심리학

8월 12일 화요일

09:00 - 10:30	종교적 행동의 기원 : 의례적 행동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 설명들	심형준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10:30 - 12:00	The Origins of Human Life History: Implications for Human Behavior and Demography	Mary K. Shenk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인류학과
12:00 - 13:30	점심	
13:30 - 15:00	문화의 기원 I : 문화-유전자 공진화의 관점에서	김준홍 Postech 인문사회학부
15:00 - 16:30	문화의 기원 II :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전중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16:30 - 18:00	문화의 기원 III : 표상역학의 관점에서	구형찬 서강대 ACKR
18:00 - 19:00	문화의 기원 패널 토론	모더레이터: 정재승 KAIST 뇌인지과학과 패널: 김준홍, 전중환, 구형찬

8월 13일 수요일

09:00 - 10:30	고대근동 문명과 글자의 기원 : 최초의 학교와 서기들의 창의성	주원준 한남성서연구소
10:30 - 12:00	한국인의 기원 : 아프리카에서 한반도까지 기후가 만든 한국인의 역사	박정재 서울대 지리학과
12:00 - 13:30	홀로세 작물 재배와 농경의 기원 :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곽승기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13:30	폐회사	

Time Table

* 모든 강의 세션은 60분 강의 + 15분 질의응답 + 15분 휴식으로 진행됩니다.

8.11. (Mon)	8.12.(Tue)	8.13. (Wed)
10:00-10:30 여름학교 등록 및 개회사 10:30-12:00 신경계의 기원 이대한 (성균관대 생명과학과) 12:00-13:30 점심 13:30-15:00 의식의 기원 박형동 (KAIST 뇌인지과학과) 15:00-16:30 노화의 기원 양재현 (KAIST 뇌인지과학과) 16:30-18:00 분업의 기원 차영재 (시카고대 심리학과)	9:00-10:30 종교적 행동의 기원 심형준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10:30-12:00 The Origins of Human Life History Mary K. Shenk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인류학과) 12:00-13:30 점심 13:30-15:00 문화의 기원 I 김준홍 (Postech 인문사회학부) 15:00-16:30 문화의 기원 II 전중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16:30-18:00 문화의 기원 III 구형찬 (서강대 ACKR) 18:00-19:00 문화의 기원 패널 토론 모더레이터: 정재승 (KAIST 뇌인지과학과) 패널: 김준홍, 전중환, 구형찬	9:00-10:30 고대근동 문명과 글자의 기원 주원준 (한남성서연구소) 10:30-12:00 한국인의 기원 박정재 (서울대 지리학과) 12:00-13:30 홀로세 작물 재배와 농경의 기원 곽승기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13:30 종강

Program

01 / 신경계의 기원 4

단세포 생물은
어떻게 인간이 되었나

이대한
(성균관대 생명과학과)

02 / 의식의 기원 6

뇌-신체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바라본
의식의 기원에 관한 이론들

박형동
(KAIST 뇌인지과학과)

03 / 노화의 기원 8

진화가 설계한 생존 프로그램

양재현
(KAIST 뇌인지과학과)

04 / 분업의 기원 10

사회심리학의 관점에서

차영재
(시카고대 심리학과)

05 / 종교적 행동의 기원 12

의례적 행동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 설명들

심형준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06 / The Origins of Human Life History 14

Implications for
Human Behavior and Demography

Mary K. Shenk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인류학과)

07 / 문화의 기원 I 18

문화-유전자 공진화의
관점에서

김준홍
(Postech 인문사회학부)

08 / 문화의 기원 II 20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전중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09 / 문화의 기원 III 22

표상역학의 관점에서

구형찬
(서강대 ACKR)

10 / 고대근동 문명과 글자의 기원 26

최초의 학교와
서기들의 창의성

주원준
(한남성서연구소)

11 / 한국인의 기원 28

아프리카에서 한반도까지
기후가 만든 한국인의 역사

박정재
(서울대 지리학과)

12 / 홀로세 작물 재배와 농경의 기원 30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곽승기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 모든 강의 세션은 60분 강의
+ 15분 질의응답 + 15분 휴식으로 진행됩니다.

신경계의 기원 :
단세포 생물은 어떻게
인간이 되었나

The Evolutionary Journey
of the Nervous System:
From Single Cells to Us

이대한
(성균관대 생명과학과)

주요 저서
『인간은 왜 인간이고 초파리는 왜
초파리인가』 (2023)

「Balancing selection maintains
hyper-divergent haplotypes in
Caenorhabditis elegans 」 (2021)

「Comparative single-cell
transcriptomic atlases of drosophilid
brains suggest glial evolution during
ecological adaptation 」(2025)

강의 요약

신경계의 출현은 생명 진화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뇌는 신경 복잡성의 정점을 보여주지만, 그 기원은 단세포
진핵생물과 가장 원시적인 동물 계통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깃편모충(choanoflagellate)을 비롯한 자매 원생생물
그룹, 해면동물, 자포동물을 비롯한 기저 동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알아낸
신경계의 기원과 혁신 과정을 통해 인간 뇌의 진화에 이르는 여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최신 진화신경생물학과 비교유전체학 연구를 종합하여, 인간 신경계가
태초의 기원으로부터 어떻게 등장했는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식의 기원 :
뇌-신체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바라본 의식의
기원에 관한 이론들**

**Theories on the Origin of
Consciousness from the
Perspective of Brain-Body
Interaction**

**박형동
(KAIST 뇌인지과학과)**

주요 저서
「Breathing is coupled with voluntary
action and the cortical readiness
potential」 (2020)

강의 요약

첫째, 의식이란 무엇인가? 의식 과학 연구에서 과학자, 철학자들은 의식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살펴본다. 둘째, 의식의 진화론적 기원은 무엇인가? 과연 인간의 의식은 언제, 왜,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관하여 논의한다. 셋째, 의식의 신경학적 기원은 무엇인가? 뇌-신체상호작용이 의식의 신경학적 기원이 될 수 있다는 최근의 인지신경과학연구들을 논의한다.

**노화의 기원 :
진화가 설계한
생존 프로그램**

**The Origin of Aging: A
Survival Program Shaped
by Evolution**

양재현
(KAIST 뇌인지과학과)

주요 저서
「Chemically induced reprogramming
to reverse cellular aging」 (2023)

「Loss of epigenetic information as a
cause of mammalian aging」(2023)

강의 요약

인간은 오랜 진화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유전자와 생리적 프로그램을 선택해 왔다.
이 생존 프로그램은 젊은 시기의 생존과 번식에는 강력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가하는
양날의 검이 된다. 노화는 바로 이러한 진화적 생존 전략의 그림자이자
대가다. 한때는 되돌릴 수 없는 운명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과학은 그 한계를
넘어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생존을 해치지 않으면서 세포 손상을
수선하고, 생명 시스템을 재설계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노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과학적 과제로 다시
정의되고 있다.

분업의 기원 :
사회심리학의 관점에서

The Origins of Division
of Labor: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차영재
(시카고대 심리학과)

주요 저서
「The cognitive complexity of a
happy life, a meaningful life, and a
psychologically rich life」 (2024)

「A meta-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gratitude
interventions on well-being across
cultures」 (2025)

강의 요약

사회적 분업은 현대 사회에서 생산성의 근본적인 요소로 오랫동안
인식됐지만, 그 심리적 선행 요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다. 본 강연에서는 분업의 기원을 심리학, 사회학, 생태학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사회적 분업이 초래하는 심리적 결과에 관한 연구를 소개한다.
개인 수준에서는 분업으로 인해 관심사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호기심이
저하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결과를 다룬다. 사회적 수준에서는
분업화된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습득 및 교류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문화적 수준에서는 분업이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근면성과 순응성을 강조하는 가치관을 강화하는지를 살펴본다.

종교적 행동의 기원:
의례적 행동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 설명들

The Origins of Religious
Behavior: Various Scientific
Explanations for Ritual
Behavior

심형준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주요 저서
「현대 사회변동과 응용종교학의 패러다임
전환」(2025)

「코딩을 활용한 종교문화 연구, 디지털
종교학의 가능성」(2024)

「복어는 액막이 부적인가, 행운의
부적인가?」(2024)

강의 요약

종교적 행동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에 대한 상식적 이해를 넘어서야 한다. 본 강연은 종교적 의례를 인간이 특정 생태문화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 전략으로 재해석한다.

먼저 고고학적 증거와 진화심리학적 이론들이 제시하는 설명의 검토한 후, 우리 주변의 구체적 사례들—신년의례, 액막이, 복어나 말편자 같은 부적 사용—을 통해 의례 행동의 기능과 의미 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의례적 행동이 출현하고 유지되는 과정에 위험 회피, 공포 관리, 집단 결속, 문화적 기억 전승 등 다층적 차원이 존재함을 살펴본다.

핵심 논지는 ‘종교’, ‘믿음’, ‘신화’가 원인이 아닌 결과라는 점이다. 실제 선행 요소는 생존을 위한 환경적 압력과 이에 대한 적응이며, 종교적 관념과 행동은 이러한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후행 지표이다. 따라서 종교적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것이 어떤 환경적 도전에 대한 대응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인간 생애사의 기원 : 인간 행동과 인구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The Origins of Human Life History: Implications for Human Behavior and Demography

Mary K. Shenk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인류학과)

주요 저서
『Human Behavioral Ecology』 (2024)

「Kinship, Development, and
Demography: Why Pakistan has the
Highest Rates of Cousin Marriage in
the World」 (2024)

「When Does Matriliney Fail?
Frequency and causes of matrilineal
transitions estimated from a de novo
coding of a cross-cultural sample」
(2019)

강의 요약

이 강연에서는 생애사 이론(life-history theory)의 관점에서 인간의 독특한 생물학적 특성—긴 임신과 수유 기간, 늦은 성숙 연령, 여러 자녀에게 동시에 투자하는 전략, 그리고 폐경이라는 드문 특징—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극도로 무력하고 의존적인 영아를 돌보기 위한 집중적 부모 투자 전략, 장기간의 사회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독특한 발달 단계인 아동기, 자녀가 성인 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아버지와 ‘알로마더’(allomother, 협력 양육자)의 도움이 필수적인 종특적 행동 양상 등,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과 함께 공진화한 인간 행동의 특징들도 함께 논의한다.

먼저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생애사적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본 뒤, 인간 생애사가 생계 생태(subsistence ecology)의 변화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시대별 행동 양상과 인구 구조를 형성해 왔는지를 고찰한다. 특히, 사냥·채집 생활에서 농경으로 전환된 신석기 혁명, 그리고 인간의 삶이 점차 세계 시장 경제에 통합되고 의존하게 되는 시장 전환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 두 인구학적 전환의 인과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농경의 도입이 어떻게 사망률과 출산률을 동시에 증가시켰는지, 그리고 산업화 및 시장 통합이 경제 체제, 보건 기술, 문화, 결혼 시장 등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며 세계적으로 출산률 감소를 유도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강연의 마지막에서는 인간 생애사가 오늘날의 시장 통합 환경—지구상의 대다수 인구가 빠르게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삶의 조건—에서 나타나는 출산 및 행동 양상에 대해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 현대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생애사적 전환의 의미를 함께 모색할 것이다.

Overview

In this lecture I will discuss the evolution of distinctive aspects of human biology including long periods of gestation and lactation, a late age of sexual maturation, investment in multiple children at once, and the rare trait of menopause. In parallel, I will discuss several co-evolved aspects of human behavior including our intensive parental investment strategies that must account for our unusually helpless and dependent infants, the unique developmental stage of childhood which enables prolonged social learning, the need to support children in adult social competition, and our species-typical dependence on help from fathers and other allomothers.

I will begin with the evolution of these patterns across the transition from apes to humans, then explore how human life history has interacted with emerging subsistence ecologies to shape different patterns of behavior and demography across time. In particular, I will explore the Neolithic transition from foraging to agriculture as well as the ongoing process of market transition in which human ways of life have become increasingly integrated with and dependent on the global market economy. We will discuss the causal mechanisms underlying both demographic transitions, aiming to understand how the transition to agriculture likely increased both mortality and fertility while the transition to industrialization shaped economic systems, health technology, culture, and the marriage market in ways that have motivated people around the world to reduce their fertility. I will conclude by discussing the implications of human life history for ongoing patterns of fertility and behavior in the modern market integrated contexts which are quickly becoming the norm for most people on the planet.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or grey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ypical of notebook paper.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blank, lined paper. It features approximately 20 evenly spaced horizontal grey lines across its entire width,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or typing. The background is a clean, solid white color.

문화의 기원 I :
문화-유전자 공진화의
관점에서

The Origins of Culture
I: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Culture
Coevolutionary Theory

김준홍
(Postech 인문사회학부)

주요 저서
『유전자는 혼자 진화하지 않는다』
(2024)

『다윈의 미완성 교향곡』 (2023)

『휴먼 디자인』 (2023)

강의 요약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인류는 현재 지구 거의 대부분에 거주한다. 이는 인류가 본래 살고 있던 사바나나 관목지대가 아닌 다른 환경에 적응이 필요했다는 것을 뜻한다. 과연 인류가 지니고 있던 유전적인 적응만으로 환경의 도전을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 인간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똑똑하기 때문에 환경의 응전을 극복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천재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지 못한다. 인류는 다른 동물보다 좀 더 정확한 사회적 학습을 함으로써 누적적인 문화를 진화시켰다. 아프리카를 떠났던 인류는 아마도 누적적인 문화를 통하여 형성된 집단적인 지성에 의존하여 생존의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문화로 인해 새롭게 조성된 사회적 환경은 유전자에 대한 새로운 선택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도 최근 유전학 기술을 발달로 인해 유전자 및 문화의 공진화의 증거가 수집되고 있다. 비록 인간의 행동에 대한 공진화의 증거는 거의 없지만 인간의 사회성도 공진화 과정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문화의 기원 II: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The Origins of Culture II
: from the viewpoint of
evolutionary psychology

전중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 주요 저서
- 『진화한 마음』 (2019)
 - 『오래된 연장통』 (2014)
 - 『욕망의 진화』 (2013)

강의 요약

MBTI 유행, 돼지고기 금지, 케이팝 데몬 헌터스, 노트르담 대성당, 칠가이, 여성 성기 절제 등 문화는 넓고 다양하다. 어떻게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 문화적 진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유전자-문화 공진화 이론(혹은 이중 대물림 이론)은 문화적 현상은 유전적 대물림과 뚜렷이 구별되는, 새로운 대물림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제안한다. 행동, 가치, 관습, 아이디어는 관찰과 모방 같은 사회적 학습을 통해 전파되고 정교화된다. 그러나, 이중 대물림 이론은 문화적 진화가 생물학적 진화가 질적으로 다름을 종종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유전자의 관점에서 생명을 이해하는 현대 진화이론의 토대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부정한다. 본 발표에서는 진화심리학자 니콜라 보마르와 파스칼 보이어 등이 제안하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한다. 문화적 현상은 개체들이 서로 공유하는 사회적, 생태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일 따름이며, 따라서 포괄 적합도 이론의 틀에서 매끄럽게 이해될 수 있다.

문화의 기원 III: 표상역학의 관점에서

The Origins of Culture III: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pidemiology of Representations

구형찬
(서강대 ACKR)

주요 저서

『신을 찾는 뇌』 (2025)

『문화설명하기』 (2022)

『감염병 인류』 (2021)

강의 요약

문화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 가설이 공존 및 경쟁한다. 각 가설의 타당성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핵심 질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문화'는 물질 세계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존재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일까? 문화의 전달이나 전승이란 정확히 어떤 사건일까? 문화 전달과 전승의 단위는 무엇이며, 어떤 인과적 과정이 작용할까? 문화적 진화는 생물학적 진화와 어떤 관계일까? 이번 강연에서는 당 스페르베의 고전적인 이론인 '표상역학'의 관점에서 이 질문들에 답해보면서 '문화의 기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제안한다. 특히, 표상역학의 관점은 개체군 사고에 입각하여 진화심리학, 문화-유전자 공진화, 인간행동생태학의 설명력을 강화한다.

[illegible]

문화의 기원
패널 토론

The Origins of Culture
Panel Discussion

모더레이터 :
정재승
(KAIST 뇌인지과학과)

패널 :
김준홍
전중환
구형찬

고대근동 문명과
글자의 기원 :
최초의 학교와 서기들의
창의성

The Scribes of the Ancient
Near East: The First Schools
and the Creativity of Scribes

주원준
(한남성서연구소)

주요 저서
『인류최초의 문명과 이스라엘 - 고대근동
3천 년』 (2022)

『구약성경과 신들 - 고대근동 신화와 고대
이스라엘의 영상』 (2018)

『신명기 -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경 주석』
(2016)

강의 요약

이 강연은 인간 지식의 기원과 전승에 관한 것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인류 최초의 문명인 고대근동 문명을 이룬 서기들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본다. 서기의 출현, 서기의 교육기관인 비잇 톱피,
신레키운닌니, 일리말쿠, 에상길-킨-아플리 등 대표적인 서기들, 인류
최초의 여성 시인 엔헤두안나 등 대표적인 서기들과 그들의 활동 등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고대근동 문헌이 작성되는 속기(Fortschreibung)의
개념을 제시한다. 둘째는 고대근동 서기들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맥락의
연구를 일별한다. 특히 ‘일부러 쉽고 간편한 문자체계와 문헌’을 추구하지
않은 듯한 문헌증거를 검토하고, 그것이 서기들의 비판적 인식이요
활동이었음을 음미한다. 이런 점은 구약성경 등 고대근동 문헌의 특징을
이해하는 방법은 물론 인류가 지식을 어떻게 생산하고 전승하는가에
대해서도 빛을 밝혀준다.

한국인의 기원 :
아프리카에서 한반도까지 -
기후가 만든 한국인의 역사

The Origin of the Koreans :
From Africa to Korea: How
Climate Shaped Korean
history

박정재
(서울대 지리학과)

주요 저서
『한국인의 기원』 (2024)

『인간의 시대에 오신 것을 애도합니다』
(2024)

『기후의 힘』 (2021)

강의 요약

한반도는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동아시아의 외곽에 위치하여 구석기 시대에 수렵채집민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기온이 떨어질 때면 북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곤 했는데, 가령 2만 5000~1만 8000년 전의 마지막 빙기 최성기나 8200년 전과 같이 강력한 추위가 덮친 시기에는 그러한 이주의 흐름이 뚜렷했다. 반면 기온이 오르면 이들은 익숙한 북방의 초원 지대로 다시 돌아가곤 했다. 홀로세에 접어든 후 온난 습윤한 환경이 한동안 이어졌고 이주의 흐름은 잦아들었다. 그러나 4800년 전 기후 최적기가 끝나면서 다시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한다. 이후 발생한 대부분의 이주는 500년 주기의 장주기 엘니뇨와 200년 주기의 태양 활동 변화가 이끌었다. 사람들의 이동은 대부분 랴오시 지역에서 시작되어 랴오동을 거쳐 한반도 남부로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가는 경로를 따랐다.

**홀로세 작물 재배와
농경의 기원: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Holocene plant domestication
and agriculture in the Korean
peninsula**

**곽승기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주요 저서
『화학고고학』 (2023)

「광역 스펙트럼 혁명(Broad-Spectrum
Revolution)과 홀로세 초기의 작물 재배
-동아시아의 신석기시대를 중심으로-」
(2024)

「Early Holocene dietary patterns on
the Neolithic Jeju Island, South Korea:
evidence from stone artifact and stable
carbon isotope analysis」 (2023)

강의 요약

홀로세의 시작과 함께 인류의 생계 방식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작물 재배와 농경의 시작이다. 홀로세에 접어들어 근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포함한 세계 각 지역에서 작물재배가 시작된 고고학적 증거를 간취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적어도 신석기시대 이른 시점(ca. 8000 BP)부터 작물재배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격적인 벼농사의 증거는 청동기시대에 진입한 이후(ca. 3500 BP)부터 확인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고고학에서 작물 재배와 농경이 시작된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알아보고, 수렵채집에서 농경으로 생계 방식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들을 살펴본다. 더불어 동아시아의 작물재배 및 농경과 관련된 고고학적 연구성과들을 공유하며, 한반도에서 작물 재배와 농경이 시작된 원인을 고찰한 사례들을 알아본다.

기부 및 협찬

알레 출판사

호모 날레디의 흔적과 인간의 공감 능력을 다룬 책을 읽고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해가 더 깊고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케이브 오브 본즈》(리 버거, 존 호크스) 20권

《무엇이 우리를 다정하게 만드는가》

(스테퍼니 프레스턴) 10권

(주) 북이십일

인류와 문명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데
꼭 필요한 최고의 도서 5종을 선정해
인간의 기원 여름학교에 증정합니다.

《신을 찾는 뇌》(로빈 던바) 4권

《던바의 수》(로빈 던바) 4권

《나는 곧 세계》(크리스토프 코흐) 4권

《위어드》(조지프 헨릭) 4권

《호모 사피엔스》(조지프 헨릭) 4권

(주) 오라틱스

대한민국 1등 구강유산균 전문 브랜드 오라틱스가
2025 인간의 기원 여름학교를 응원합니다.

Oratix 구강유산균 12팩

몬스터포엠

학술 멀티미디어 제작사 몬스터포엠이
2025 인간의 기원 여름학교의 영상 촬영과 제작을
지원합니다.

알레

BOOK21
Oraticx



2025 인간의 기원 여름학교는 인류 보편의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해온 최고의 학자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공개 토론에 참여하는 초학제적 학술 행사입니다.

뇌, 의식, 행동, 문화, 종교를 비롯해 인류 문명의 기원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과학적이면서도 폭넓은 관점에서 풀어나가고자 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 시민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학교는 KAIST 뇌인지과학과와 서강대학교 K종교학술확산연구소(ACKR)가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하며, 특별히, KAI-X의 후원을 받아 3일간 진행됩니다. 8월의 더위보다 뜨거운 지적 열정을 품고 2025 인간의 기원 여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